잇단 추락사에…제석산 구름다리 밑 '안전 터널' 만든다

남구 '터널형 복개 구조물' 추진…다리 22m 아래 녹지공간 조성
광주시에 15억 특별교부세 요청…8월 이중 안전 그물망 설치도

광주시 남구가 추락 사건이 끊이지 않는 제석산 구름다리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다리 하단에 '터널형 복개 구조물'을 설치하는 안을 추진한다.

남구는 지난 23일 제석산 구름다리 하단에 터널형 복개 구조물 설치안을 수립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광주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을 요청했다.

남구는 구름다리 아래에 길이 40m의 터널 형태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를 흙으로 덮는다는 계획이다. 터널의 높이는 8m, 흙까지 포함한 전체 구조물 높이는 15여m로 계획하고 있다 .

현재 구름다리의 높이가 최대 37m인 점을 감안하면, 구름다리와 구조물 간 높이 차이는 22m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는 구조물 설치가 완료되면, 보행자가 추락하더라도 단단하고 평평한 아스팔트가 아닌 녹지 사면구간으로 떨어지게 돼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는 향후 구조물의 앞뒤 길이를 늘려 생태통로 기능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남구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조물이 동물 이동과 경관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기능까지 갖추기 위해선 길이를 130m까지 늘려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남구는 우선 초기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m 구간만 우선 설치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해 점차 구조물의 길이를 늘려 가겠다는 복안이다.

남구는 복개 사업에 앞서 '제석산 구름다리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다리 아래에 이중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해당 그물망은 상단 1322㎡, 하단 548㎡ 규모로 구성되며, 초록색 와이어망 소재로 성인 체중 100kg 하중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계됐다.

이 사업에는 행정안전부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예산 중 1억 3000만원이 투입되며, 남은 7000만원은 CCTV 및 주변 조명 설치에 순차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이달 중 착공, 8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터널형 복개 구조물 설치 계획은 2000년도 초부터 논의돼왔으나 예산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그물망은 나일론 재질로 비와 햇빛 등 자연환경에 의해 부식될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꾸준히 필요한 만큼 확실한 조치를 통해 더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제석산 구름다리는 지난 1999년 도로 개설 도중 주민 민원으로 인해 등산로를 보존하기 위해 설치된 다리다.

이곳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7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2월과 4월에도 각각 1건씩 발생하는 등 추락 사건이 반복됐다. 지난 20일 오후 5시께에도 40대 남성이 다리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남구는 지난 2020년 난간 높이를 기존 1.2m에서 2m로 상향하고 상단에 회전형 롤러를 설치해 붙잡고 올라가기 힘들게 만드는 등 추락 예방 조치를 했으나, 반복되는 사고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시 남구 봉선동 제석산 일대에 설치된 구름다리 전경. 〈광주일보 자료 사진〉

창문 너머 수채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린 2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거리에 행인들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장맛비 주춤

당분간 광주·전남에 장맛비가 주춤하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새벽까지 장맛비가 내리다, 장마전선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당분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고 24일 밝혔다.

27일까지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25일은 새벽까지 내린 비로 기온이 내려가 아침 최저기온 19~21도, 낮최고기온 25~28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부터는 아침최저기온은 18~20도, 낮최고기온은 27~29도 등 기온이 오르며,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도 31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장마전선은 오는 28일부터 다시 광주·전남 상공으로 이동해 비를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 기온이 오르고, 습도까지 더해져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학생들이 위태롭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극단적 선택' 221명 '역대 최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교 학생이 22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중·고교에서 이른바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도 1만 8000명에 육박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실시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전국 초·중·고교의 자살위험군 학생은 총 1만 76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검사 대상 학생(165만 8715명)의 1.1%에 해당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9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생도 7880명에 달했다. 특수학교 학생은 18명, 초등생은 16명이었다.

자살 위험군 학생 중 13.7%에 해당하는 2417명은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숙명여대, 김건희씨 석사학위 취소 결정

국민대 박사학위 취소 착수

숙명여대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숙명여대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2022년 2월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12월 논문 검증을 위한 본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진위는 여러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논문 조사 결과를 알리지 않았고, 민주동문회로부터 '늦장 조사', '깜깜이 조사'라고 비판받았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숙명여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와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측 통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칙도 개정했다.

국민대도 이날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합뉴스

제주 면세점 주류 구매 제한 없앤다

제주여행길에 면세점에 들러 구입할 수 있었던 주류 구매 병수 제한도 사라진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주류 면세 범위의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주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류 면세 범위에서 병수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 여행객에 대한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2병)을 폐지, 병수와 상관 없이 용량(2ℓ) 및 가격(400달러 이내) 한도만 지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는데 이를 제주 면세점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연합뉴스